

중국 위생 방역의 근대 변천과 성격

남개대학 역사학원 위신중(余新忠)

번역 : 김단실

설령 근대 이전의 중국 사회에도 위생 행위와 개념이 있었고 오랜 역사의 흐름속에서 수많은 위생방역 조치와 경험들이 축적되어왔다고 할지라도 근대적 의미의 위생관념과 공권력이 개입된 근대적 위생방역 기제는 서구에서 건너온 박래품(舶來品)임이 틀림없다. 19세기 후반 이후 ‘망국 멸종’의 위기에 몰리면서 중국 사회의 엘리트들은 ‘비위생적인 나라’, ‘동아병부(東亞病夫)’ 등 치욕적인 국제이미지로부터 탈피하여 ‘나라를 튼실히 하고 민족의 씨를 지켜내야 한다(強國保種)’는 비장한 결의를 가지고 차츰 신체와 위생에 주목하게 되었고 ‘근대적’ 위생관념의 제창과 공중보건제도 구축이라는 굴곡지고도 험난한 역사 여정(旅程)을 선두에서 밀고 나갔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근대화 실현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개도국 중국에서 서구 유래의 근대 공중보건제도의 전면구축은 아직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전통에서 근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중국 사회는 위생 방역면에서 뚜렷한 변화를 겪었다.

첫째, 근대이후 서구문명 등 여러 요인의 영향하에 중국 사회는 정부가 주축이 되어 국가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한 근대 공중보건체제를 점진적으로 구축해 나갔다. 19세기 후반부터 서구문명의 파장이 커지면서 서구에서 탄생한 근대적 공중위생 관념과 기제는 과학과 문명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따금 폭발했던 콜레라, 페스트, 천연두와 같은 치명적 급성 감염병

의 직접적 영향으로 중국사회에 수용되고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중국은 과거에 민중 건강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전문 부처조차 없고 기능이 불충분했던 국면으로부터 탈피하여 중앙과 지방에 의료 위생 사무를 관장하는 위생행정 부처와 전문적인 방역연구 기구를 설치했다. 아울러 일본 등 국가를 본보기로 공공위생 관련 법규를 제정했고 소독청결, 검역격리, 인공면역, 질병통계, 역학조사 및 감염병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위생 방역 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일반 민중들의 위생 습관 및 의식 향상, 위생 환경 개선을 기본내용으로 대중적인 위생 운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원래 개인의 일인 위생문제가 어느 시점부터인가 민족의 흥망과 연관된 국가 대사(大事)로 탈바꿈했고 국가가 근대적 공중보건 기제 구축에 힘입어 본래는 민간의 분산적 비제도적 영역에 속했던 위생방역 관념과 행위들을 정부의 제도화된 시스템에 귀속시키는 데 성공했고 민중들의 신체는 날로 국가에 예속되고 국가기능의 구현 및 권력은 끊임없이 확장되어 갔다. 위생방역의 직접적 목표는 분명히 개인 혹은 민중의 건강 수호에 있는데 오랜 세월 동안 중국은 공중보건 사업을 ‘강국보종(強國保種)’ 및 국가부강을 위한 조치로 간주했고 개인의 권리라든지 공평 정의 따위에는 거의 신경쓰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위생방역 조치 실행에 있어서 여타 사회적 정치적 요인을 감안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흔히 공공 위생 사건들이 벌어진 경위를 들여다보면 허다한 경우 통치자가 사회적 사조거나 여론의 힘에 등 떠밀려 자신의 통치를 일층 수호하고 자신의 통치적 합법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속셈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았다.

둘째, 전통에서 근대로 나아가면서 사회의 위생방역 관념은 부정적 이미

지에서 차츰 긍정적 방향으로 이미지 전환이 이루어졌다. 전통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중국 사회의 인식은 ‘귀신이 벌이는 짓(鬼神司疫)’이거나 ‘사악한 기에 의해 초래되는 짓(疫气致疫)’이라는 두 가지였었다. 비록 광범위한 내용들이 이에 포함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양내피외(養內避外)’가 근본이며 원기(元氣)를 튼튼히 다지는 것 외에 역병을 멀리하는 것을 위주로 한, 대체로 소극적이고 내적인 개인행위들이었고 결코 관(官府)이 개입된 공공행정사무는 아니었다. 아울러 감염병은 허공에서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예방하거나 피할 방도가 없다는 인식에서 역병에 감염되면 제 명이 다한 것이라고 운명으로 받아들였고 감염병 예방 쪽에 고민의 역점을 두는 일은 없었다. 근대에 접어들어 공공위생 관념과 제도가 서서히 도입되면서 중국 사회의 감염병 대응의 방점도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회피와 치료를 위주로 한 방역에서 적극적 방역으로 전환되었다. 근대의 방역은 이념상 예방을 보다 강조하며 대응조치에 있어서는 위생환경을 적극 개선하는 방법으로 감염병 폭발 예방과 횡수 감소를 지향하는 한편, 소독과 검역, 강제적인 인공검역과 과학연구 등 수단을 통해 감염증을 통제하고 정복하고자 했다.

현대의 위생방역 체제는 청조말기부터 20 세기에 걸쳐 복잡한 역사적 맥락속에서 중국 사회에 서서히 도입되어 중국의 현대 제도와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1, 우리는 근대 위생방역의 뚜렷한 근대성과 외래성에만 착목해 전통적 요소와 역량을 홀시해서는 안된다. 중국 사회에서 공권력이 개입된 현대 과학기술 기반의 근대적 공중보건 기제는 서양의 박래품임에 틀림없고 서구

문명의 강점과 막강한 영향력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진보라든지 근대화 따위의 개념에서 출발하지 말고 역사 사료에 입각하여 고찰하면 전통적으로 공중위생과 연관된 관념이나 행위가 청조말엽 이전의 중국 사회에서도 엄연히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역량이 이를 주도했으므로 그 표출방식이 개별적이고 자주적이며 공권력의 개입이 결여된 특징을 보일 따름이다. 최소한 다음과 같은 지적이 가능하다. 1) 근대 위생 기제 속에 전통 요소와 리소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방역 이념에서 여기(戾氣)학설과 세균 이론이 접목되고 일부 섭생 관념이 근대 보건 개념에 통섭되면서 근대 위생 속의 전통 요소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도시 환경위생 행정의 분뇨 오물처리 시스템의 근대적 전환은 전통 리소스에 힘입어 이루어졌다. 2) 당시 중국 사회 운영상의 자체적 욕구가 종종 국민들로 하여금 근대 위생체제의 여러 항목들에 상이한 반응을 보이게 했다. 예컨대 중국의 일부 중심 도시에서는 청조 가경-도광(嘉道)시기 이후 수질오염과 감염병 유행이 빈발하면서 수자원을 개선해야 한다는 강한 요구가 존재했기 때문에 수돗물과 같은 시설은 인구가 많은 중심 도시에서 비교적 쉽게 받아들여졌다. 또한 나날이 심각해지는 도시의 환경오염에 비판과 불만을 제기해 왔던 지역사회 엘리트층들도 특히 도시 위생행정이 신경쓰였던지라 선선히 이를 수용했다. 이러한 부분은 말할 나위없이 근대 공중보건 시스템 발전의 초석이 되고 변화의 근거를 제공했던 것이다.

나, 근대 공중보건체제는 단순한 건강 수호라는 목적뿐만 아니라 계급성과 종족성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즉 근대적 '위생'은 당연히 건강 수호라는 효용성을 지니고 있지만 제도로써 도입 및 추진 시 전적으로 건강 추구

만을 유일한 목표로 삼지 아니할 뿐더러 사회속에 존재하는 민족, 재산, 문화 등 각 방면에서 우위에 있는 계층이 자신들의 이익에 입각하여 과학과 문명의 이름으로 관련 조치들을 사회전체에 강요하는 이익 및 권력 질서이기도 한 것이다.

ㄷ, 근대 공중보건제도의 도입 및 전개는 도시면모 개선, 위생시설 정비, 감염병 발병을 저하 그리고 국가 이미지 향상 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회의 중상류 계층의 시각에서는 당연히 매우 바람직한 진보적 조치였다. 그러나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층 서민들에게는 흔히 ‘힘만 들고 혜택은 없었다’. 예컨대 분노 오물 처리와 같은 청소 시스템의 변혁은 일반 서민들에게 세금 증세를 예고했을 뿐만아니라 도시 주변 향민들의 거름을 얻기 위한 비용을 증가시켰다. 이른바 도시 면모 개선은 그들에게는 특별한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았고 적어도 시급한 일은 아니었다. 아울러 위생 청결, 검역과 같은 제도는 사람들의 실리와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기도 한다. 보다시피 위생적 각도에서 이룩된 근대화 과정의 허다한 ‘진보’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대가를 지불한 경우가 일상다반사였다. 예컨대 위생검역은 중국 사회에 주권, 건강, 문명과 진보를 선물했다고 하지만 민중의 권리와 자유가 위생과 문명이라는 이름하에 침해되고 박탈당한 측면도 있었다.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 부흥 등 정당한 이유와 목표를 위해 일부 국민들의 이익과 자유의 희생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 민중의 권리와 합리적 요구를 묵살하고 심지어 보수, 우매, 낙후라고 호도해도 될까? 이들에게 강요하는 희생이 과연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지 좀 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

은 자명하다고 생각한다.

르, 청조 전기에 국가는 의료위생 사무에 거의 개입하지 않았고 제도적인 관련 규정도 결여된 상태였다. 청조 말기에 위생행정이 구축됨에 따라 위생사업은 점차적으로 종전의 개별적이고 자주적이며 관리를 받지 않는 행위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관(官)의 직능하에 놓인 업무로 자리매김되었다. 의료 위생 사업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점차 증대되었고 ‘국가 근대화’의 중요한 부분인 정부의 위생행정의 점진적 구축은 국가 기능의 심화 및 구체적 구현이었고 국가 권력의 일종 확장이기도 했다. 설령 그 필요성과 정당성이 자명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들 제도 자체에 내재된 권력관계를 인지하지 못하고 상응한 감독과 제약 기제를 마련하지 못하면, 정부의 기능은 근대화라는 명목하에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무한정 확장되어가는 한편, 민중의 실수요는 필요한 만큼 각광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전국민이 비용을 지불한 이른바 진보와 ‘근대화’라는 성과가 적어도 일반 서민들에게는 ‘水中月’, ‘鏡中花’---그림의 떡이었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조말기 이래 서양의 근대적 경험을 모델 삼아 과학, 문명, 진보의 명의 하에 근대적 공중보건제도를 도입, 구축한 시도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이 수시로 덮치는 어려운 역사적 배경에서 이루어졌다. 주권위기 등 외부의 압력이 없지 않았지만 총체적으로 이는 100여 년 전 중국의 지역 엘리트층의 자발적, 자각적인 선택이었고 근대 이래 국가와 국민의 근대화를 추구해 온 그들의 노력의 일부분이기도 했다. 그들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된 데는 상당히 복잡한 원인과 마인드가 작용했겠지만 당시 안팎으로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이 제도가 중국 사회를 구원하고 종족(種族)의 가난과 질병을 퇴치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실제 필요성과 적용여부 같은 것을 거의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다. 사실상 치밀하게 고민할 기회와 시간이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고, 실행시의 편의를 위해 그들은 복잡한 상황을 주권 수호, 문명과 현대화 추구 라는 단순한 이슈로 몰고 갈 수밖에 없었다. 시대가 바뀌고 심적 여유나 물질 풍요가 이제는 지나친 사치가 아닌 오늘날에 와서 과거 선인들의 노력과 한계를 타할 필요는 없겠지만, 역사의 복합적인 모습을 되살려 내어 현재를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시의 복잡한 역사 구도 속에서 중국의 근대화 과정을 되짚어보고 그 속에서 근대성을 다시 성찰할 수 있는 영감과 자원을 발견할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근대 이후 서구의 민주정치제도의 발전은 ‘생명정치’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새로운 통치권력은 초기의 ‘사람을 죽게 만들거나 살게 하는’ 권리에서 점차적으로 ‘사람을 살게 만들고 죽게 내버려두는 권리’로 바뀌었다. 이 새로운 ‘생명정치’는 민중의 생명과 건강 등에 책임을 지니므로 근대 공중보건체제의 생성 발전에 박차를 가했고 정권은 생명에 관여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를 부여받았다.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 국문(國門)이 뚫리고 민족적 위기가 날이 갈수록 고조되면서 외압에 자극받아 근대화의 길에 들어섰다. 이 과정에서 빈발한 전염병이 계기가 되어 정부 주도하에 강성국가를 지향하는 근대 위생방역 체제를 점진적으로 도입 창설하였고 이는 중국 근대화 과정에서 뚜렷한 특색이 되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감염병을 근대 공중보건

과 직결시켜 논술하는 경우를 흔히 볼수 있는데 사실상 역병은 하나의 계기에 불과했다. 근본적 동력은 역시 중국문명 자체에 내재된 엄청난 자생력과 자강정신이었고 대대로 이어온 사회적 재역에 대한 높은 관심과 중시에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중국의 감염병 대응에서 전통이 갖는 의미를 쉽게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국내외적으로 궁지에 몰렸던 역사적 배경을 감안하면 감염병 대응과 치료에 관한 전통적 유산을 치밀하게 점검하여 근대 보건제도에 유기적으로 접목시킬 만한 충분한 여유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었음을 이해해야 할것이다. 따라서 제도 구축에 있어서 오로지 ‘강국(強國) 보종(保種)’ 즉 국가 강성(強盛)의 실현이라는 의미만을 부각시키고, 위생방역 자체가 지닌 개개인의 생명과 건강의 권리 수호라는 의미에 제대로 주목하고 체현하지 못했던 까닭에 청조말기 및 민국시기의 위생방역은 지나치게 짙은 정치적 색채를 띄게 되었던 것이다.

주요 참고 문헌

반켈러: 《19세기 중국의 페스트》 주후이잉 옮김, 중국런민대학출판사 2015년.

덩테타오: 《중국방역사》, 남녕: 광서과기출판사, 2006년.

이지마와타루: 《페스트와 근대 중국: 위생의 제도화와 사회변천》, 푸이엔, 위신충, 장빈 옮김, 사회과학문헌출판사 2019년.

판상준: 《예방의학사상사》, 상하이: 화동의무생활사華東醫務生活社, 1953년.

위신중: 《청대 위생 방역 메커니즘과 그 변천》 2016 년 베이징사범대학출판사.

미셸 푸코:《사회를 지켜야 한다》 치엔한 윽김, 상하이: 상하이인민출판사, 2018 년.

미셸 푸코:《생명정치의 탄생》, 모웨이민, 자오웨이 윽김, 상하이: 상하이인민출판사, 2018 년.

위신중:《청조시기 강남의 온역과 사회 : 하나의 의료사회사 연구》, 북경: 북경사범대학 출판사, 2014 년.

위신중:《진실과 재구성: 20 세기 중국의 역병과 공중위생을 조감하다》 < 안휘대학학보> 2015 년 5 기.

위신중:《청대 위생방역 기제과 그 발전》, 베이징사범대학출판사, 2016 년.